北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7천580초 비행 1천500㎞ 표적 명중
김정은 참관 안 해…미사일 도발 4번째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13일 전했다.

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총평 무기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장거리순항미사일을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라면서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돼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 차례의 발동기지상 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비서의 참관 하에 시행됐다.

박 비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그는 “국방과학 부문에서 나라의 방위력·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분투하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하고 전망적인 전쟁억제력 목표 달성에서 계속되는 성과들을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로켓의 추진력으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 속도와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이용하며 직선 궤도로 날아간다.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은 용이하지만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다. 또 탄도미사일은 탄두부의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등을 실을 수 있지만,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를 통해 탄두 무게를 줄여야 한다.

북한이 밝힌 사거리 1천500㎞는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와 비슷하다.

올들어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는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9·11 추모식 대신 복싱 해설 나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20주년인 지난 11일(현지시간) 권투 경기 해설에 나섰다. 〈사진〉

생존 전·현직 대통령 중 96세로 몸이 불편한 지미 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9·11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추모식 대신 뉴욕 맨해튼의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대원을 격려했지만 이날 그의 행보는 9·11보다는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복싱 경기 해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경기를 해설하던 도중 작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심판 판정을 기다리던 중 과거 복싱에서 잘못된 판정을 많이 봤다면서 “이건 선거와 같다”, “이것도 조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패한 작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9·11 20주년 메시지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더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 패배 속에 항복했다며 “우린 이런 무능이 야기한 망신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을 ‘바보’에 비유하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이 누군가와 복싱을 해야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쉬운 상대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경기 시작 몇 초 만에 쓰러지리라 생각한다”고 조롱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세계인구 90-95% 면역 생겨야 종식”

향후 수개월 대응 험난할 것…가장 중요한건 백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 인구의 90-95%가 면역력을 획득해야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세계 모든 사람이 감염을 통해서든 백신을 통해서든 코로나19와 접촉한 후에야 대유행이 끝난다는 의미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3일 보건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 전망에서 세계 수십억 명이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앨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향후 수개월이 험난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대유행이 끝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새 변이로 이어지는 전염의 유행과 백신 접종 간 경쟁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와 접촉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마이클 오스터홈 미네소타대학 전염병연구정책센터 소장은 “전 세계에서 전염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 전염은 상당히 빠르게 감소했다가 올가을과 겨울에 또 한차례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신생아나 백신 공급이 부족한 지역, 백신 접종 거부자, 접종 후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인한 돌파 감염, 일부 국가의 방역 완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여전해 유행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 로스킬드대 론 시몬슨 교수는 지난 130년간 발생한 5차례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사례에서 코로나19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독감 중 유행이 가장 길었던 것은 5년간 지속됐지만 나머지는 2-3년간 2-4차례 유행하고 종식됐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지역별로 3-4차 유행을 일으키며 만2년을 향해가지만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의 백신을 무력화하는 새 변이 출연 가능성과 코로나19가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계절성 독감이 될 가능성,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가능성 등도 우려한다.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것이 6개월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

전체 인구의 90-95%가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해야 현재 대유행의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한다. /연합뉴스

‘폭탄 장난전화’에 착륙 비행기서 30명 비상탈출

폭탄이 설치됐다는 장난전화 탓에 중국 베이징공항에 착륙한 홍콩발 비행기에서 30명이 긴급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홍콩에서 출발한 캐세이퍼시픽 CX390 여객기가 당일 정오께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통해 비행기에서 내렸다.

캐세이퍼시픽은 전날 성명을 통해 당국이 안전 위협 가능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받은 후 예방차원에서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통해 승객들을 대비시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동물원 고릴라 13마리 코로나 집단감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동물원에서 고릴라 13마리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1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애틀랜타 동물원에서 고릴라 13마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마리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동물원 사육사들은 고릴라들이 최근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며 입맛을 잃음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조지아대학교 애선스 수의학분석연구소는 동물원에서 보내온 고릴라의 검체를 분석한 후 양성 판정을 내렸다. 이 동물원은 미국 국립 수의학연구소의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원측은 사육사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